

최현숙작품집

나의 사랑

연변인민출판사

나의 사랑

최현숙작품집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근총

책임교정: 최영애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我的爱/崔贤淑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5.8

ISBN 7-80698-531-X

I. 我... II. 崔... III. ①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②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093271号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图们市荣华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7.125 字数: 20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531-X/I 63 (民文)

版次: 2005年8月第1版 2005年8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6.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1981년 8월에 저명한 녀류작가 정령이 연변을 방문했을 때 그녀를 모시고 농촌을 참관했다.



1956년 3월, 전국청년작가대표대회에 참가했을 때 임효원선생 등 문인들과 함께



후배 녀류작가들과 함께
 김양금, 김영금, 최현숙, 두정숙, (앞줄 왼쪽으로부터)
 조성희, 리혜선, 방룡주, 리선희, 리화숙(뒤줄 왼쪽으로부터)

참된 삶의 추구자

—서문을 대신하여

김수국

비내리는 밤.

책상에 마주앉고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다. 사람이 나서 한번 죽기는 마련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왜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이다지도 허비고있는지?

바람이 갈개치며 휘뿌리는 비방울이 창문을 때릴적마다 흘러간 세월속에 고인 추억의 실머리들이 하나, 둘 떠오른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연의 매력은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때로는 그것을 감상하는 각자의 기분에 따라 그 명암이 달라진다고 들 한다. 하지만 고결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세계, 거기서 받아안은 강렬한 인상은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살아있어 생활의 갈피갈

피마다에서 값높은 지향으로 낮을 불태우고 참된 삶으로 이끌어 주는 소중한 길동무로 간직되기 마련이다. 내가 알고있는 최현숙 선생, 수수한 가정주부다운 너그러운 인품에 항상 웃음으로 반기여주던 최현숙선생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중국조선족문단에 이름있는 녀류작가였으며 사회활동가였던 최현숙선생은 오랜 병으로 시달림받다가 1991년 7월 24일 아침 5시에 심장의 고동을 멈추어 67세를 일기로 영영 우리의 곁을 떠나가버렸다. 내가 최현숙선생의 존함을 모시게 된것은 벌써 중학교시절에 신문, 잡지를 통하여 두루 익혀오다 정작 얼굴을 대면하기는 그때로부터 썩 후날인 1964년 6월이었다. 내가 신문사에 전근되어오면서부터 우리는 같은 동업자로 한울안에서 신문이나 문학을 놓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우리의 선배인 그분에게서 많은 조언도 받았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10년이 되고 또다시 10년세월이 거듭되어 20여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대바른 성품과 소탈한 몸가짐, 남다른 일욕심에 이르기까지 많은걸 배웠었다.

내가 신문사에 온 다음해인 1965년도에 가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때 최현숙선생은 신문사 문예부간조 부조장으로 있으면서 왕청에 간적이 있었다. 하루는 밖에서 일을 보고 현 초대소에 돌아오니 초대소 복무원들이 새 이부자리를 안고 돌아치면서 저희들끼리 뭔가 수군덕거리고있었다.

〈아, 마침 오셨군요.〉

내가 현관문을 넘어서는걸 보자 한 복무원이 이렇게 환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왜들 이러시오?〉

〈글쎄 오늘 신문사에서 너기자 한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별생각이 없이 그분을 일반객실에 들게 하였는데요. 그런데 현 부련

회의 간부 한분이 왔다가면서 그 녀기자인즉 주 부련회 부주임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독방에다 자리를 옮겨드리자고 하여도 막무가넨걸요. 한번 말씀해줘요. 네?)

〈최현숙아주머니가 왔겠군.〉

〈웁아요!〉

내가 복무원을 따라 현숙아주머니가 들어있는 침실에 찾아가니 그는 창문쪽에 돌아앉아 수첩에 뭔가 적고있었다.

〈주 부련회 부주임동지를 귀빈으로 모시겠다는데 어서 자리를 옮기시다.〉

나는 그의 등뒤에 대고 일부러 말소리를 높이었다.

〈아니? 언제 들어왔소. 어서 여기와 앉소. 자리는 뭘, 난 어디 가나 제 자리를 잘 튼다오. 이게 여복 좋소. 말동무도 있으니...〉

어데 가나 틀거지가 없는 소탈한 성품은 그저 수더분한 농촌아주머니 같은 그 본새 그대로였다. 거기다 한번 아니라고 하면 더 어쩔수 없는 고집도 여간 드세지 않아서 종시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말았다.

이때의 최현숙선생의 신분으로 말하면 신문기자이면서 길림성부련회 집행위원, 주 부련회 부주임을 겸직하고있었다.

선생님은 일찍 통신 〈산울림〉, 실화 〈옥금이〉, 단편소설 〈나의 사랑〉, 〈금단〉 등 주옥같은 수십편의 글들을 펴내여 우리 조선족문단을 곱게 장식하여준 재능있는 작가였으며 신문기자였다. 그분은 해방후 토지개혁으로부터 인민해방전쟁, 항미원조, 위대한 사회주의적개조시기,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인 역사시기에 걸쳐서 자기의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왔다.

남들이 곤히 잠든 깊은 밤에도 원고 한편때문에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한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성에장이 떠내려오는 이른 봄 강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면서 고달픈 취재길을 계속 이어나

갔다.

독자들에게 보다 좋고 보다 생신한 정신식량을 보태어주려는 한 문필가의 책임성—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뛰어들어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려는 선생님의 강의한 투지와 작가의 열이 그대로 숨배어있은것이다.

한번은 내가 대학시절에 감명깊게 읽었던 그분의 소설 〈나의 사랑〉이 생각나서 이 소설의 소재는 어떻게 왔느냐고 물은적이 있었다.

〈남들은 사실근거가 없이도 상상으로 이야기를 잘 꾸민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재간이 없소.〉

이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다. 한번은 취재길에 올라 어느 한 마을을 지나는데 그 집 마당에 벼를 가득 널어놓고 닭을 쫓는 한 아주머니와 마주앉게 되었다. 그 아주머니는 앞 못보는 소경이었는데 그 집에는 총각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동네의 칠칠한 처녀들은 저마다 도시로 들어갈 궁리만 하면서 이런 집에 시집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쓴것이 곧 〈나의 사랑〉이었다. 이 소설이 〈연변문예〉에 발표되자 독자들의 반향이 컸으며 자치주창립 10돐에는 창작상까지 수여받았다.

소설 〈금단〉 역시 취재과정에서 얻은 소재를 모델로 하여 씌여진것이였다. 그는 자기의 체험담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지금 나는 소설을 쓰지만 신문기자로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무슨 사실근거든 어투리가 있어야 쓰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 구상하는 재간이 없다.〉

글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과 같이 아무런 가식도 없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보이는 그속에는 얼마나 고귀한 녀이 담겨져있는것인가. 자기의 창작원천을 생활속에 두고 그것으로 인

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진지한 창작태도와 우리의 문학이 꼭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이 신념을 드팀없이 지켜온 그 모든것으로 하여 우리는 더욱 사무치게 선생님을 그리게 된다.

최선생님은 녀인들에게 고유한 섬세성과 또 그만큼 일에 들어서서 끈질긴분이기도 하였다. 1979년 6월, 정년리직후에도 한동안 계속 신문사에 나와 신문사력사지편찬에 종사하였었다. 40년에 가까운 신문사의 낡은 문서와 신문더미를 들추면서 력사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사업은 실로 어려웠다. 때로는 지나치다고 하리만큼 재료더미를 훑는 그런 갸간한 일본새에서 나는 많은것을 배웠다.

나는 선생님이 남긴 이런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그 정신, 그 의력으로 더욱 실속있게 일해나갈것이다.

고 최현숙선생님이여, 고이 잠드시라!

1991년 8월

차례

소 설

- 시어머니 /3
- 독봉이 /24
- 옥금이 /35
- 나의 사랑 /45
- 신랑 /54
- 고향소식 /60
- 호박꽃이 필 때 /75
- 첫 승리 /95
- 면허증 /106
- 마음의 금선 /115
- 희망 /123
- 손님 /136
- 간호원의 마음 /140

실 화

- 김순희 /149
- 원예가의 안해 /159
- 왕청 서위자의 오늘 /168
- 우리네 자랑 /175
- 훈춘 서위자의 새 아침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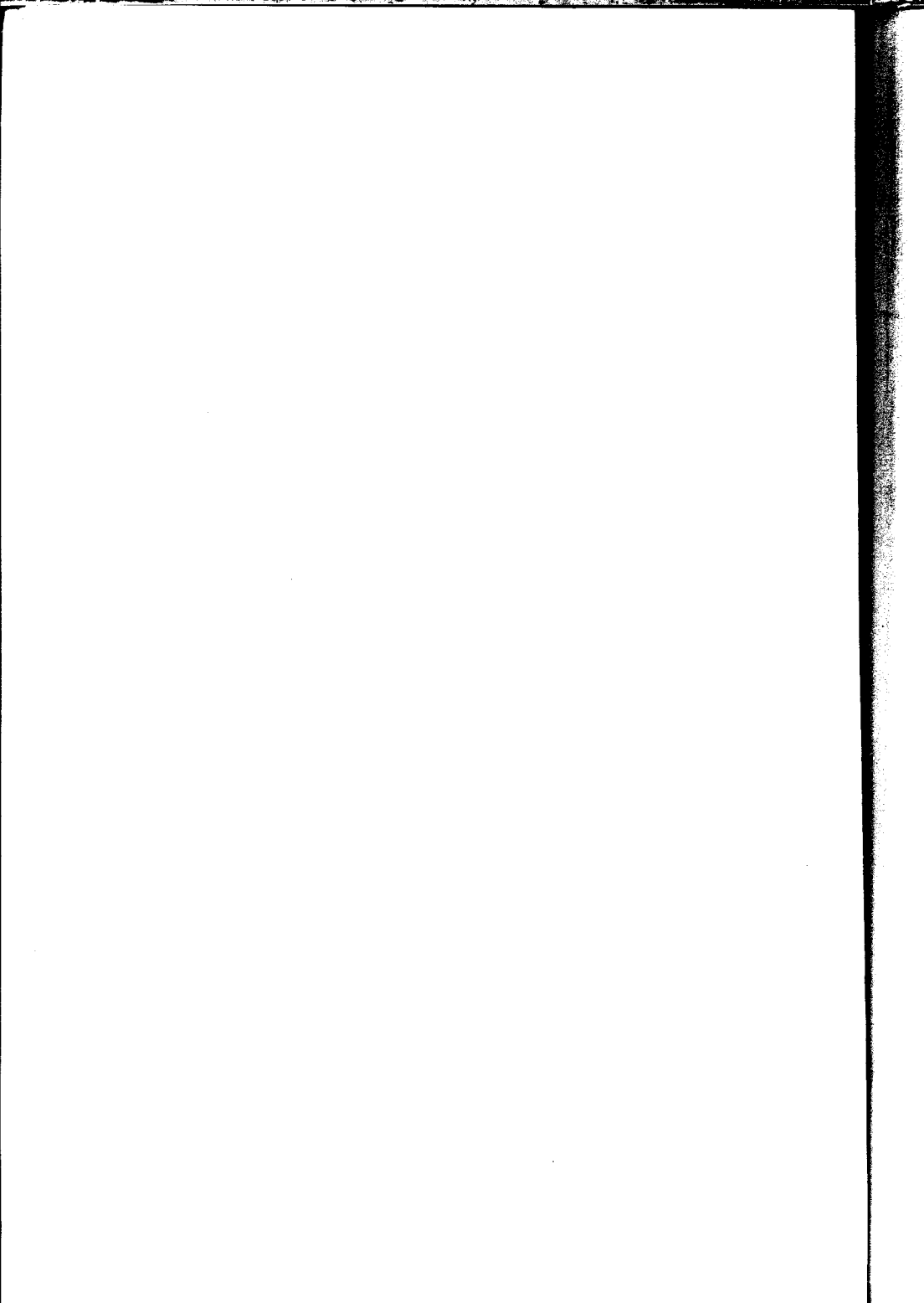
시, 수필 및 창작담

- 단결은 힘이로세 /191
- 통정에 묻힌 감정 /192
- 신문사와 덜붙어 /194
- 편자와 작자 /202
- 한 초학자에게 보내는 편지 /203
- 창작에 대한 생각 /210

부 록

- 후기 /215

설



시어머니

나는 대학에 입학하자 인권동무를 알게 되었다. 나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할머니마저 세상을 뜨시니 정부의 보살핌에 의해서 공부하였다. 그런만큼 나는 인권동무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왔다.

인권동무네 집은 봉림동이란 농촌에 있었다. 명절이거나 방학 때면 나는 의례 인권동무네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그렇게도 반갑게 맞이해주고 맛나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극진히 생각해주었다. 나도 그 집에 가있는 동안은 팔을 부르건고 어머니의 일손을 거들어드렸다.

그 집에는 조부, 조모 그리고 어머니에 인권동무까지 3대가 살고있었다. 그러기에 그 마을에서는 그 집을 3대집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게 되자 그 마을에서는 3대집에서 대학생며느리를 삼았다고 여간만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보다도 마을사람들이 더 우러러보게 된것은 인권동무가 중

양연구원에 추천받아 갔고 나는 대학 보조교원으로 남게 된 것이었다.

자식을 미워하는 어버이 어디 있으리오만 자식을 생각하는데 있어 우리 시어머니는 보통이 훨씬 넘었다. 우리는 로인들을 학교 사택에 모셔오기로 하였다. 인권동무는 집을 이사해놓지 못한채 연구원으로 떠나갔다. 그래서 뒤일은 나와 어머니가 처리해야 했다.

이사하는 일로 어머니의 기색은 몹시 심중해졌다. 나는 이 몇 해동안 시집에 드나들며 어머니와 많이 접촉해보아서 알지만 일반 농촌녀성치고는 아주 과단성있고 경우가 바른분이였다. 한데 이번 이사하는 일에서는 주저심을 앞세우면서 좀체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였다.

그 리유라면 첫째로 이 마을은 어머니가 나서 자란 곳은 아니로되 우리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께서 항일의 길에 올랐던 유서깊은 땅이기에 함부로 이 산골을 떠날수 없다고 생각한것이다. 둘째로 이 고장은 조상의 선산이 쓰인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일가 래일 일가 하는 로인들을 모시고 낫설은 곳에 가서 그것도 새며느리에게 시름을 맡길 일이 여간만 걱정되지 않았던것이다. 셋째로 아직 어머니로 말하면 치마자락을 걷어붙이고 허리만 질끈 동이면 기름진 땅에서 얼마든지 일해서 살아갈수 있는데 하필 성시에 들어가 일손을 놓고 물마저 사먹는것이 못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어머니가 이상의 사실을 넘려하는것이 부질없는 생각만은 아니라고 보았다. 거기에는 간단없는 사연들이 엉켜있었다.

봉림동은 지난날 항일의 화불이 타오른 영웅의 땅이였다. 구수하 신흥동에서 소작농으로 있던 최창섭은 소작료때문에 말썽이 생겨 지주에게 애매한 구타를 당했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그 사회에서 맞으니 공매라 분을 억제할수 없었던 최창섭은 떡매를 때

고 가서 지주를 때려눕히고 도망해서 봉림동에 와있다가 항일대오에 가담하였다.

최창섭은 기골이 장대한데다가 몸집이 웅장한분이었는데 적개심이 강하고 계급우애심이 지극한 등 보귀한 특징들을 소유하고있었다. 후에는 조직에서 그에게 적위대 대장책임을 맡기었는데 그의 별호는 떡메였다.

그가 봉림동에 와있으면서 제일 가까이 지낸것은 김병기라는 청년이었다. 그때 떡메의 나이는 스고개를 바라보았지만 병기는 25세밖에 안되는 씩씩한 적위대원이었다. 떡메는 병기를 여간만 관심하지 않았다. 병기 역시 떡메를 몹시 존경하였다.

1931년 가을에 적위대는 삼도만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때 조직에서는 적위대를 분산시켜 목적지까지 가게 하였다. 떡메는 이 기회에 병기를 데리고 신흥동을 거쳐 가기로 하였다.

신흥동 역시 항일력량이 비교적 강한 곳이었다. 그렇지만 원쑤는 어디에나 있으므로 경각성을 높여야 했다. 떡메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산기슭에 앉아 어두워지기를 고대했다. 이때 떡메는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해오던 일이 불현듯 떠오르며 병기에게 말해줘야겠다는 충동을 받았다.

〈병기!〉

떡메는 곁에 앉아 총을 매만지고있는 병기를 나직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다.

〈예!〉 병기는 대장이 무슨 지시라도 내리려니 했다.

〈자네로 말하면 조부와 부모 슬하에 넷이나 되는 녀동생을 데리고 구차하게 사는 형편에 혁명에 나섰으니 언제 배필을 얻어 성례하겠나. 그래서 우리 딸 금련이를 자네와 짝을 무어줄가 하는데 생각이 어떤가?〉

병기는 천만뜻밖의 일이라 손에 땀이 다 내배였다. 꿈만 같은